

# 감각통합 중재를 사용하는 초임치료사의 교육요구도 및 역량에 대한 자기평가

이지현\*, 정혜림\*\*

\*유원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조교수

\*\*백석대학교 작업치료학과 조교수

## 국문초록

**목적** : 감각통합중재를 하는 초임 치료사를 대상으로 감각통합중재 역량의 중요도, 수행도, 교육 요구도를 조사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 3년 이하의 감각통합 중재 경험이 있는 치료사 174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과 감각통합중재 역량의 중요도, 수행도, 교육 요구도를 조사하였다. 교육요구도와 순위를 규명하기 위해 Borich 교육요구도 분석을 사용하였다.

**결과** : 초임 치료사가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면서 수행수준을 가장 낮게 인식하는 역량군은 '전문성'이었으며, 응답한 교육요구도와 Borich 분석에서도 '전문성'역량군의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역량 모두에서 중요도와 수행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Borich 분석에서 '전문성'역량군 내의 하위영역 중 '평가기술'(5.56), '분석기술'(5.50), '작업치료 일반지식'(5.47)로 교육요구도의 순위가 도출되었다.

**결론** : 감각통합중재를 사용하는 초임치료사는 전문성 역량군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수행수준이 낮다고 인식하였고, 해당 교육을 가장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초임치료사의 교육 요구도를 반영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의 방향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감각통합중재, 교육 요구도, 역량, 초임치료사

## 1. 서론

감각통합치료는 아동과 청소년에게 흔히 사용되는 작업치료 중재로서 아동의 신경학적 요구에 맞춘 감각입력

을 제공하여 신체 움직임의 인식, 운동계획, 실행을 향상시키며(Kim & Kim, 2007), 궁극적으로 아동이 일상생활 및 놀이와 같은 의미 있는 작업에 참여하도록 한다(National Broad for Certification in Occupational

교신저자: 정혜림(hyerimhome@hanmail.net)

접수일: 2022.07.28.

|| 심사일: (1차: 2022.08.16. / 2차: 2022.08.26.)

|| 게재확정일: 2022.09.23.

Therapy, 2008). 감각통합치료의 대상은 지적 장애, 자폐스펙트럼장애,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 뇌성마비 등 중추신경계의 문제로 작업에 참여가 어려운 다양한 진단의 아동들이며(Kim, 2015), 감각처리와 조직화의 문제로 인한 행동 문제를 나타내는 아동들이 증가함에 따라 감각통합치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Chang, Lee, Jung, & Jung, 2012).

작업치료 임상에서 실행하는 ‘감각통합치료(sensory integration therapy)’를 중심으로 하는 감각발달재활은 청능, 미술심리재활, 음악재활, 행동, 놀이심리, 심리운동, 재활심리, 운동발달재활과 함께 발달재활서비스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달재활서비스 제도가 시작되면서 감각통합치료를 제공하는 기관과 서비스 수요자가 확대되었고 서비스 제공 인력의 수요도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에 집중적이었던 아동작업치료 영역이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센터 등으로 점차 다양해졌다. 2021년에 배출된 작업치료사는 1,935명으로 작업치료사의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KAOT, 2021). 작업치료사 국가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작업치료학과를 졸업한 자의 경우, 대다수가 기본적인 감각통합치료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교과과정을 이수하므로 감각통합치료 제공인력으로서의 기본 자격이 자동적으로 주어진다고 볼 수 있어(Kim, 2017) 해마다 감각발달재활 인력은 증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든 분야의 초임 치료사가 그러하듯이 감각통합중재를 중심으로 하는 치료사의 경우도 대학교육과정을 통해 배운 지식과 기술을 감각통합중재 역량으로서 임상에서 발휘하는 것은 쉽지 않다(Hong & Lee, 2022). 다양한 경험과 학습의 지속을 통해 더 높은 수준의 역량을 획득하고 강화하여 경력자로서 보다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Von Zweck, 2012a; Von Zweck, 2012b). 이에 따라 졸업 이후 치료사를 대상으로 한 적절한 교육의 지속이 필수적이다.

치료사에 역량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작업치료 업무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 특성 등에 관한 핵심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Ku et al., 2015), 인지영역의 핵심실무역량에 대한 초임작업치료사와 선임작업치료사의 인식 수준을 비교한 연구(Lee, 2019), 감각통합중재를 위해 작업치료사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규명한 연구(Namkung, Kim, Kim, & Lee, 2017), 감각통

합중재를 사용하는 작업치료사의 실무 역량에 대한 인식 및 교육 요구도(Jung & Lee, 2022)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그러나 교육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많은 초임작업치료사가 인식하는 감각통합중재를 사용하는 역량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감각통합중재를 위한 작업치료사 역량모델(Namkung, Kim, Kim, & Lee, 2017)을 통해 1) 감각통합치료 경력 3년 이하의 초임치료사가 중요하게 인식하는 역량과 자기의 수행을 조사하고 차이를 분석하고, 2) 초임치료사의 교육요구와 우선순위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초임치료사의 교육 요구를 이해하고, 초임치료사를 대상으로 하는 감각통합치료 역량교육에서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 II. 연구 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 모집은 Social network service (SNS를 이용한 공개모집과 대한감각통합치료학회원을 편의 추출하여 문자 발송을 통해 설문문을 요청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목적과 읽고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상자에게 구글 설문 링크를 전달하고 응답을 받았다. 조사 기간은 2021년 8월, 1개월로, 편의 추출한 1,800명 정도의 감각통합치료학회원을 대상으로 문자를 발송하였고,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설문 대상자 모집을 공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에 응답한 303명의 자료 중 감각통합치료 경력 3년 이하의 치료사 174명의 자료를 본 연구의 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는 익명으로 이루어졌으며, 설문 도중 응답을 중지한 자료는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최종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다.

### 2. 연구 도구

감각통합중재역량 설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1) 일반적 특성은 성별, 나이, 학력, 근무지, 경력(작업치료, 감각통합치료)을 확인하였고, 2) 감각통합중재 역량의 중요도, 수행도, 교육 요구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 부터 ‘매우 그

$$\text{Borich's needs} = \frac{\sum(\text{RCL} - \text{PCL}) \times \text{mRCL}}{N}$$

RCL(required competency level): each individual's importance score  
PCL(present competency level): each individual's performance score  
mRCL: average score of importance by each competency  
N: total number

Figure 1. Borich's needs

렇다'까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감각통합중재 역량은 감각통합중재를 위한 작업치료사 역량모델 개발 연구(Namkung, Kim, Kim, & Lee, 2017)에서 개발된 역량모델의 항목을 사용하였다. 역량모델 개발 시 델파이 조사에서 모든 항목이 내용타당도(Content validity ration; CVR) 4.05이상이었고(Namkung, Kim, Kim, & Lee, 2017), 본 연구의 내적일치도 Cronbach  $\alpha$  는 .947~.987이었다. 감각통합중재 역량모델은 4개의 역량군과 15개의 하위역량, 6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며 역량군과 하위역량은 다음과 같다. ①전문성 역량군(작업치료 일반지식, 감각통합중재 이론지식, 평가기술, 분석기술, 중재기술) ②전문가의식 역량군(전문성 고취, 교육, 윤리의식, 정책적 관심) ③대인관계 역량군(의사소통, 협력) ④개인특성 역량군(자기 확신, 자기성찰, 자기관리, 긍정적 태도)

### 3. 분석 방법

#### 1) 통계분석

통계분석에는 SPSS 22.0 for Windows를 사용하였고, 작업치료사의 일반적 특성 및 역량의 중요도, 수행도, 교육 필요도의 분석에 기술통계, 빈도 분석, 대응표본 t 검정을 사용하였다. 각 역량군내의 교육요구도와 수행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분석을 사용하였다.

#### 2) Borich의 요구도 분석

초임치료사의 역량에 대한 교육요구와 우선순위를 분석하기 위하여 Borich의 요구도 분석을 사용하였다. 요

구 분석이란, 대상자의 현재 수행과 중요도 간의 차이를 규명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하는 방법이며(Borich, 1980), 공식은 각 역량별 교육요구수준 값에서 현재 수행수준의 값을 빼고 전체 값의 합계와 교육요구수준의 평균을 계산하여 전체 표본수로 나누는 것이다(Figure 1).

## III. 연구 결과

### 1. 일반적 특성

응답자의 성별은 여성이 많았고, 학력은 학사, 근무지는 발달센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의 평균은 27.11±3.60세, 작업치료 경력의 평균은 4.07±2.89년, 감각통합치료 경력의 평균은 1.65±1.06년이었다(Table 1).

### 2. 감각통합중재 역량의 중요도, 수행도 및 교육요구도

#### 1) 역량군과 하위역량의 중요도와 수행도

초임 치료사가 인식한 가장 중요한 감각통합 중재역량군은 '전문성'이었으며, 본인의 수행도가 높은 역량군은 '대인관계'이었다. 반면, 수행도가 가장 낮은 역량군은 '전문성'과 '전문가의식'이었다. '전문성' 역량군의 하위역량 중에서는 '감각통합중재 이론지식'과 '분석기술'이, '전문가의식' 역량군의 하위역량 중에서는 교육, '전문성 고취'에 대한 수행도가 낮게 나타났다.

또한, 모든 역량군과 하위역량의 중요도와 수행도간의 의미 있는 인식 차이를 보였다. 중요도와 수행도의 차가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N=174)

Characteristic	Division	N	%
Gender	Male	21	12.1
	Female	153	87.8
Age	21~25	65	37.4
	26~30	85	48.8
	31~35	17	9.7
	36~40	7	4
Academic career	College degree	39	22.4
	First degree	122	70.1
	Master ' s degree	13	7.5
Organization	General hospital	10	3.3
	University hospital	5	1.7
	Rehabilitation hospital	25	8.3
	Nursing hospital	9	3.0
	Developmental center	153	50.5
	Pre-kinder	19	6.3
	Child hospital	9	3.0
	Other	73	24.1
Occupational therapy career (years)	≤ 5	122	70.2
	6~10	46	26.4
	11~15	6	3.4
Sensory integration therapy career (years)	≤ 1	85	47.6
	~2	38	21.9
	~3	53	30.5
Total		174	100

**Table 2.** Difference in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competency cluster

Competency cluster	Importance (M±SD)	Performance (M±SD)	Gap	t
Expertise	4.35±0.66	3.19±0.70	1.25	19.92**
Professionalism	4.05±0.80	3.19±0.69	0.91	14.76**
Interpersonal relationship	4.18±0.79	3.47±0.81	0.80	12.70**
Personal character	4.27±0.75	3.40±0.77	1.01	16.05**

\*\* $p < 0.01$ , M±SD: Mean±Standard Deviation**Table 3.** Difference in importance and performance of sub-competency

Sub-competency	Importance (M±SD)	Performance (M±SD)	Gap	t
<b>Expertise</b>				
1. Overall knowledge of occupational therapy	4.34±0.64	3.08±0.66	1.26	19.61**
2. Theoretical knowledge	4.25±0.78	2.97±0.77	1.27	18.93**
3. Evaluation skills	4.34±0.80	3.05±0.81	1.28	17.24**
4. Analytical skills	4.30±0.79	3.02±0.79	1.28	17.39**

Sub-competency	Importance (M±SD)	Performance (M±SD)	Gap	t
5. Intervention skill	4.32±0.76	3.20±0.70	1.12	18.02**
<b>Professionalism</b>				
1. Expert advocacy	4.05±0.86	2.86±0.79	1.19	17.09**
2. Education	3.79±1.09	2.65±0.93	1.14	13.58**
3. Ethics consciousness	4.27±0.88	3.96±0.92	0.31	4.66**
4. Political interest	3.96±1.01	2.96±0.90	1.00	12.53**
<b>Interpersonal relationship</b>				
1. Communication	4.06±0.89	3.19±0.78	0.86	13.14**
2. Collaboration	4.22±0.83	3.48±0.88	0.75	10.95**
<b>Personal character</b>				
1. Self-confidence	4.28±0.81	3.24±0.92	1.04	12.84**
2. Self-reflection	4.24±0.87	3.22±0.91	1.02	13.44**
3. Self management	4.08±0.83	3.16±0.92	0.91	11.40**
4. Positive attitude	4.32±0.83	3.44±0.85	0.88	12.45**

\*\*p<0.01, M±SD: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4.** Education needs for competency cluster

Competency cluster	Education needs		
	M±SD	Borich	
		Borich needs	Rank
Expertise	4.19±0.69	5.44	1
Professionalism	3.79±0.94	3.69	3
Interpersonal relationship	3.81±0.95	3.34	4
Personal character	3.77±0.94	4.31	2

M±SD: Mean±Standard Deviation

크게 나타난 역량군은 '전문성', 하위역량은 '전문성'역량의 '평가기술', '분석기술', '감각통합중재 이론지식'이었다(p<.001)(Table 2, 3).

## 2) 감각통합중재 역량의 교육요구도

초임치료사의 역량에 대한 교육요구도 응답 및 중요도와 수행도를 바탕으로 분석한 Borich의 요구도의 결과는 Table 4, 5와 같다. 초임 치료사가 높은 수준으로 응답한 교육 요구도는 감각통합 중재역량군은 '전문성'이었고, '전문성' 역량군 중에서도 '평가기술'과 '분석기술', '작업치료 일반지식', '중재기술' 순서로 높게 응답하였다.

Borich의 요구도 분석결과, 평균은 4.28로 나타났다. 전체 15개 하위역량 중 '평가기술'에 대한 교육요구가 5.56로 가장 높았고, '분석기술' 5.50, '작업치료 일반지

식' 5.47, '감각통합중재 이론지식' 4.92, '중재기술' 4.84 순으로 높은 교육 요구도를 나타냈다. 상위 5개 역량은 모두 '전문성' 역량군에 속한다(Table 4, 5).

## 3. 감각통합중재 역량의 중요도, 수행도와 교육요구도의 상관관계

감각통합중재 역량군의 중요도와 해당 역량군의 교육요구도의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다( $r=.727\sim.903$ ,  $p<0.01$ )(Table 6).

## IV. 고찰

본 연구는 감각통합치료 경력 3년 이하의 초임치료사

**Table 5.** Education needs for sub-competency

Sub-competency	Education needs		
	M±SD	Borich	
		Borich needs	Rank
<b>Expertise</b>			
1. Overall knowledge of occupational therapy	4.25±0.69	5.47	3
2. Theoretical knowledge	3.95±0.70	5.40	4
3. Evaluation skills	4.28±0.83	5.56	1
4. Analytical skills	4.28±0.77	5.50	2
5. Intervention skills	4.17±0.77	4.84	5
<b>Professionalism</b>			
1. Expert advocacy	3.92±0.92	4.82	6
2. Education	3.70±1.08	4.32	9
3. Ethics consciousness	3.71±1.22	1.32	15
4. Political interest	3.84±1.08	3.96	10
<b>Interpersonal relationship</b>			
1. Communication	3.80±0.97	3.49	13
2. Collaboration	3.81±1.04	3.17	14
<b>Personal character</b>			
1. Self-confidence	3.86±1.03	4.45	7
2. Self-reflection	3.98±0.97	4.32	8
3. Self management	3.60±1.15	3.71	12
4. Positive attitude	3.63±1.03	3.80	11

M±SD: Mean±Standard Deviation

**Table 6.** Correlations between importance, performance and education needs

Competency cluster	Importance				Performance				
	1	2	3	4	1	2	3	4	
Education needs	1	.903**	.707**	.695**	.704**	.288**	.294**	.378**	.332**
	2	.602**	.849**	.767**	.692**	.238**	.345**	.382**	.340**
	3	.520**	.759**	.821**	.693**	.251**	.333**	.407**	.369**
	4	.505**	.772**	.773**	.727**	.225**	.312**	.379**	.342**

\*\*p<0.01, 1=Expertise, 2=Professionalism, 3=Interpersonal relationship, 4=Interpersonal relationship

의 교육 요구를 이해하고, 감각통합치료 역량교육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초임치료사가 중요하게 인식하는 감각통합중재 역량과 자신의 수행을 알아보고, 초임치료사의 교육요구와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연구에서는 Borich분석을 사용하여 교육요구도를 분석하였다. Borich 공식에 의하면 해당 역량의 중요도가 높고 현재의 수행 수준이 낮을수록 순위는 높아진다. Borich 함수는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한 역량기반 교육을

위해 교육요구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게 인식된다(Pyun, Lee, & Park, 2012). 대상자의 교육요구도의 평균이나 교육요구도와 수행도의 차이를 통해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방법은 평균의 한계로 인해 필요한 역량이 아닌 다른 역량을 도출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반면, Borich는 현재 수준과 요구수준을 확인하고 여기에 가중치를 주어 결과 값을 산정하여 오류를 줄인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교육요구도의 평균과 교육요구도와 수행도의 차

이를 제시하면서 Borich 분석, 상관관계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다각적으로 교육요구도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감각통합중재를 사용하는 초임 치료사의 역량에 대해 인식하는 중요도와 실제 수행수준의 차이와 교육요구도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초임치료사들은 4개 역량군과 15개 하위역량에 모두 높은 수준으로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수행수준은 보통 정도로 응답하였다. 초임치료사들은 감각통합중재 전문가로서 갖추어야 할 ‘전문성’ 역량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동시에 ‘전문성’ 역량의 수행수준은 가장 낮게 응답했다. 이는 감각통합중재를 사용하는 전체 경력의 치료사를 대상으로 역량과 교육요구를 분석한 Jung과 Lee(2022)의 연구의 중요도 및 수행도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전체 경력의 치료사가 ‘전문성’의 하위역량 중 ‘중재기술’과 ‘평가기술’을 중요하게 인식한 반면(Jung & Lee, 2022), 초임 치료사들은 ‘평가기술’과 ‘분석기술’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였다. 스스로 인식하는 ‘전문성’역량군의 하위역량에서 보통의 수행수준을 나타내 전체 경력의 치료사와 초임 치료사의 결과가 유사하였다. 이것은 ‘분석기술’과 ‘평가기술’과 같은 전문성이 감각통합치료를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고, 초임치료사들 또한 감각통합치료 ‘전문성’과 관련한 역량을 보통 정도의 수준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긍정적인 지표로 해석 할 수 있다.

초임치료사의 핵심역량에 대한 중요도 인식과 현재 수행수준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특히 ‘전문성’ 역량군에서 가장 큰 중요도-수행도 차이가 나타났다( $p < 0.01$ ). 이는 전체 경력의 치료사를 대상으로 역량과 교육요구를 분석한 Jung과 Lee(2022)의 결과와 일치한다. 이 결과는 많은 초임치료사들이 보통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감각통합중재를 위해 보다 핵심적인 역량을 필요한 수준으로 보유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렵게 느낀다는 것이다. 감각통합치료를 하는 아동작업치료사의 직무분석 연구(Choi & Hong, 2017)에서 가장 중요하면서 빈도가 높은 책무는 ‘치료’로 나타났지만, 난이도가 높은 과제는 ‘사례회의하기’, ‘평가결과 해석하기’, ‘목표 설정하기’ 등의 ‘평가’와 ‘치료계획’ 책무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드러난 ‘평가기술’과 ‘분석기술’의 중요도-수행도 결과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초임치료사들은 클라이언트의 치료 시 발휘되어야 하

는 ‘전문성’ 역량에 높은 교육요구를 보이고 있었다. 치료사들이 5점 리커트 척도로 응답한 교육요구도와 Borich의 교육요구 분석결과 모두에서 ‘전문성’ 역량군과 하위역량 중 ‘평가기술’과 ‘분석기술’의 교육요구도가 높았다. 이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정보와 자료의 정확한 수집을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역량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현재 수행수준은 그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높은 교육요구와 순위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문성’ 역량군 중 감각통합치료와 직접적인 연관이 덜한 하위 영역인 ‘작업치료 일반지식’이 교육요구도 3위에 오른 것 또한 주목할 만하다. 감각통합치료 경력이 3년 이하인 치료사는 감각통합중재의 사용 뿐 아니라 초임 작업치료사로서 느낄 수 있는 어려움도 경험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작업치료사가 감각통합중재를 사용하더라도 중재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동의 작업의 참여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감각통합 중재를 작업의 참여까지 연결하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있으리라 사료된다.

초임치료사가 인식하는 역량의 중요도, 수행도와 교육요구도의 상관관계에서 해당 역량군의 교육요구도와 중요도간 높은 상관관계가, 수행도와는 약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것은 교육 요구도는 얼마나 잘 하고 있는가 보다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하는가와 관련이 있으며, 해당 역량을 중요하게 인식하면 교육요구도도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구의 설문에 응답한 300여명의 치료사 중 174명이 3년 이내의 경력을 가진 초임치료사이었다. Choi와 Hong (2017)가 아동작업치료사 대상의 설문 조사 결과 감각통합치료 경력은 1년 이하가 61%로 가장 많았다. 이것은 설문조사 표본 추출과정에서 나타난 결과일 수 있으나 임상에서 감각통합중재를 사용하는 초임 치료사의 역량과 교육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기도 한다. 초임치료사는 대학 교육을 통해 획득한 지식 및 기술과 임상에서 요구하고 발휘되어야 하는 핵심역량 간의 불일치를 느낄 수 있다(Hong & Lee, 2022). 이것은 많은 경험과 임상 교육을 통해 해소될 수 있으며, 따라서 초임 치료사의 어려움을 공감하며 개인이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핵심 역량에 초점을 맞춘 체계적인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작업치료와 감각통합치료를 위해 필수적이다.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초임치료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초임치료사의 교육요구와 함

개 임상의 선임치료사 및 기관에서 인식하는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초임치료사에게 보다 확대된 교육 기회를 제공 하되 임상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역량교육을 초임치 료사에 맞추어 설계하고 제공하여야 하겠다. 더 나아가 병 원 및 발달센터, 학회 등 초임치료사와 관련된 기관에서 는 대상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작업치료와 감각통합중재 전문가의 양성을 위해 초임치료사에게 관 심을 기울이고 이들의 목소리를 듣는 노력이 필요하겠 다. 또한, 감각통합중재를 통하여 클라이언트의 작업참 여를 향상하기 위한 역량을 기르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 과정을 개발하여야 하며, 동시에 감각통합중재를 사용하 는 치료사들이 작업치료사로서의 정체성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문화의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감각통합중재를 사용하는 초임치료사가 인 식하는 역량의 중요도, 수행도, 교육요구도를 분석 제시 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가지 고 있다.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설문에 자발적으로 참 여한 치료사의 응답을 바탕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연구결 과를 전체 초임치료사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경력에 따른 역량의 차이와 교육 요구도를 분석하고 역량과 경력에 따라 감각통합중재 교 육과정의 맞춤 설계 하도록 자료를 제공하는 연구가 필 요하겠다.

## V. 결 론

본 연구는 감각통합중재를 적용하는 경력 3년 이하 치 료사의 감각통합중재 역량의 중요도, 수행도, 교육 요구 도를 분석하였다. ‘전문성’ 역량군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 하는 동시에 수행도는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하위 역량 모두에서 중요도-수행도의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 Borich 요구도 분석에서도 ‘평가기술’, ‘분석기술’ 등 전문성 역량군의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초임치 료사들이 감각통합중재를 사용하는 작업치료사로서 직 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중요 역량과 강화되어야 한다고 응답한 교육요구도를 면밀히 파악한다면, 초임치료사의 역량 강화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과 지원이 마련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초임치료사를 대상으로 하 는 교육과정의 설계에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 참고 문헌

- Borich, G. D. (1980). A needs assessment model for conducting follow-up studies.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31*(3), 39-42. doi:10.1177/002248718003100310
- Chang, M. Y., Lee, M. H., Jung, H. Y., & Jung, N. H. (2012). Job satisfac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working in sensory integration treatment setting.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10*(1), 33-44. doi:10.1080/07380577.2021.1964146
- Choi, J. S., & Hong, E. K. (2017). Job analysis of pediatric occupational therapists in Korea: Focused on sensory integration interven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16*(2), 1-21. doi:10.18064/JKASI.2017.15.2.001
- Hong, H. T., & Lee, H. R. (2022). Sensory integration clinical adaptation of novice occupational therapists working at a child private clinic center.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20*(1), 39-54. doi:10.18064/JKASI.2022.20.1.39
- Jung, H., & Lee, J. H. (2022). Investigating professional competency and the needs of training for occupational therapists using sensory integration intervention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20*(1), 26-38. doi:10.18064/JKASI.2022.20.1
- Kim, I. S. (2015). A survey on a status of sensory integration therapy in Korea.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13*(2), 1-19. doi:10.18064/JKASI.2015.13.2.001
- Kim, J. M., & Kim, K. M. (2007). The review of proprioceptive activities in sensory integration interventio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1*(1), 1-7.
- Korean Association of Occupational Therapists. *Current status of occupational therapist produce*. Retrieved 1 October, 2021, from <https://www.kaoth.or.kr/>

kaot.org/

- Ku, I. S., Jung, M. Y., Yoo, E. Y., Park, J. H., Lee, J. S., & Lee, H. S. (2015). Development of competency indicators for korean occupational therapists(K-CIO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Occupational Therapy*, 23(1), 137-149. doi:10.14519/jksot.2015.23.1.11
- Lee, D. H. (2019). Comprehension level of core practice competency of cognitive domain in first-time occupational therapist and senior occupational therapis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Neurocognitive Rehabilitation*, 11(1), 47-54. doi:10.29144/KSCTE.2019.11.1.47
- Namkung, Y., Kim, K. M., Kim, M. S., & Lee, J. Y. (2017).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sensory integration intervention competency model for occupational therapist.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Sensory Integration*, 15(2), 22-34. doi:10.18064/JKASI.2017.15.2.022
- National Board for Certification in Occupational Therapy(NBCOT). (2008). *Executive summary for the practice analysis study: Occupational therapist registered*. NBCOT<sup>®</sup> 2008 Practice Analysis, Gaithersburg, MD: Author.
- Pyun, C. H., Lee, J. G., & Park, Y. H. (2012). Needs analysis of career consultants' job competency in specialized high school.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15(3), 27-51. doi:10.36907/krivet.2012.15.3.27
- Von Zweck C. (2012b). Career mobility of occupational therapists in canada. *Occupational Therapy Now*, 14(6), 7-9.
- Von Zweck, C. (2012a). Advanced competencies in occupational therapy practice. *Occupational Therapy Now*, 14(2), 8-10.

## Abstract

# Educational Needs and Self-Assessment for Competency of Newly Employed Therapists Using Sensory Integration Intervention

Lee, Ji-Hyun\*, Ph.D., O.T. Jung, Hyerim\*\*, Ph.D., O.T.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U1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Baekseok University

**Objective :**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importance, performance, and educational needs of sensory integration intervention competency for newly employed therapists who use sensory integration intervention.

**Methods :** The general characteristics, importance, performance, and educational needs of sensory integration intervention competency were investigated for therapists with less than three years of experience in sensory integration intervention. Educational needs and rankings were identified through Borich needs analysis.

**Results :** The competency cluster that newly employed therapists perceived as the most important but with the lowest performance level was “Expertise,” and the demand of the “Expertise” competency cluster was also the highest in the analysis of educational needs. The difference in importance and performance in all sub-competencie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Borich needs analysis, the rank of educational needs was derived as follows: “Evaluation skill” (5.56), “Analysis skill” (5.50), and “Overall knowledge of occupational therapy” (5.47).

**Conclusion :** It was found that the newly employed therapist using sensory integration intervention recognized professional competency as the most important, while also recognizing that their professional competency was low. Accordingly, education to enhance professional competency was most needed. This study presented basic data for the direction of education to strengthen competency in consideration of the educational needs of newly employed therapists.

**Key words :** Competency, Education needs, Newly employed therapists, Sensory integration intervention